

20년만에 밝히는 베트남전의 모든 것

군사총책임자던 맥나마라의 회고록 출간으로 화제 모아



베트남전 당시 군사정책 총책임자였던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이 최근 회고록 《회상》을 펴내 화제다. 사진은 월남전에 파병된 미군들이 군사작전을 펴고 있는 모습.

1975년 4월 30일. 미국인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의 날이다. 20년전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했던 초강대국 미국이 공산세력에 의한 사이공의 함락으로 허둥지둥 베트남을 빠져나왔던 날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군사정책의 총책임자였던 로버트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 《회상(In Retrospect)》(브라이언 밴드마크 공저, 타임북스/랜덤하우스판)에서 자신의 실책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을 계기로 미국 학계와 정계에서는 베트남 정책에 관한 재평가 논쟁이 재연되고 있기도 하다.

맥나마라(79)는 케네디, 존슨 행정부때 베트남전쟁 개입을 주장하며 패과의 선두에 섰던 인물.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조교수로 활동하다가 포드자동차회사 사장으로 변신, 61년 케네디 대통령의 간청으로 국방장관으로 입각했던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이다.

68년 사임한 이후에는 세계은행 총재로 취임해 81년까지 국제 경제계의 막후 실력자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60년대 당시 반전주의자들과 언론들은 베트남전을 ‘맥나마라의 전쟁’으로 불렀을 만큼 그의 군사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베트남전과 맥나마라는 뿔려야 뿔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전쟁후 관련인사들이 너도나도 자서전을 내놓거나 변명하기 바빴던 것과 달리 굳게 입을 다물어 금금증을 더욱 부채질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된 맥나마라의 회고록은 전쟁에 대한 그의 첫 공식발언인 셈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전쟁옹호자로 알려졌던 그가 이 책에서 자기 자신과 행정부의 실책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있으니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맥나마라는 “애당초 회고록을 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말로 책의 첫머리를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펴내게 된 것은 “미국 국민들이 정부와 지도자에 대해 무조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더이상 참고 볼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인들이 이처럼 정부를 불신하게 된 데에는 베트남 전쟁이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전쟁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로서 이제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할 때란 것을 인식하게 됐다 는 것이다. 그는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냉소와 비난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지만 정당한 회의주의는 한 사회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정부가 베트남에서 실패한 원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호치민의 비중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당시 맥나마라를 비롯해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료 대다수가 호치민을 단순한 공산지도자로 여겼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에게 호치민은 분단 국가를 하나로 연결해줄 수 있는 영웅적인 민족주의자였다는 것. 하이테크 전쟁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했던 점도 실패의 원인이 됐다. 최첨단 병기와 폭격기가 베트남 밀림전에서 기대보다 별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베트남 참전 자체에 대해선 지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상황에서 베트남을 잃게 되면 동남아시아 전역에 공산체제가 확산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베트남정책 수립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책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베트남의 역사·문화·지리 국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악의없는 실수’였다고 맥나마라는 주장한다. 결국 60년대 당시의 인식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뉴욕 타임스》 등 미국언론들이 《회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점 때문이다. 백악관 내부 분위기와 약간의 비밀자료를 첨가한 것 이외엔 23년전 언론인 데이비드 헬버스탐이 쓴 《더 베스트 앤드 더 브라이테스트(The Best And The Brightest)》나 71년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던 펜타곤 비밀문서(일명 펜타곤 페이퍼)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의 베트남 전략은 근거가 희박한 분석자료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 나는 20여년 동안 기업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기업가란 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찾는 전문가이다. 왜

행정부에선 기업에서 일할 당시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된다.”

맥나마라의 자탄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악의없는 실책’으로 베트남 전쟁터에 보내졌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이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지성들이 등장하는 추리소설

칼 막스, 조지 기싱 등 19세기 영국 최고의 지성인들이 범죄사건의 용의자로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소설이 출간됐다. 영국의 추리작가 피터 애크로이드가 내놓은 《엘리자베스 크리의 재판: 라임하우스 살인사건에 관한 소설》(낸 A 탈레스, 더블데이판)이 화제작. 1880년 런던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잔혹한 이면과 비참한 민중의 삶, 당대 최고 지성인들의 개혁사상을 접목시킨 특이한 구성의 작품이다.

이야기는 엘리자베스 크리란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처형을 기다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녀의 비극적인 인생은 재판기록과 남편의 일기장이 하나둘씩 소개되면서 드러난다.

엘리자베스는 런던 빈민층 주거지인 라임하우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연극배우가 되겠다는 희망을 안고 성장했다. 우연히 덴 르노란 유명 코미디언을 만난 그녀는 그의 도움으로 드디어 극장무대에 진출, 생기를 찾게 된다.

엘리자베스가 스타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던 중 라임하우스 지역내에서는 끔찍한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한 창녀가 목이 잘려 살해되고 늙은 유태계 학자가 토막시체로 발견되는 등 엽기적인 살인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것이다. 런던 경찰청은 이 지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을 탐문수사한 끝에 독일에서 건너왔다는 급진사상가 칼 막스, 가출한 알콜 중독 아내를 찾아다니던 영국 시인 조지 기싱, 그리고 코미디언 르노 등을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는다.

수사당국이 이들을 의심하게 된 것은 사건 주변정황으로 볼 때 범인이 예술가이거나 시를 즐기는 지식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개

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을 통해 한 시대와 사회의 치부, 인간의 어두운 속성 등을 몽땅 드러내고 있는 점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다.

피터 애크로이드는 <오스타 와일드의 마지막 유혹> <채터튼> <폭스무어> 등의 작품으로 영미권에 잘 알려져 있는 작가. 특히 세련된 문체와 탄탄한 구성, 지적인 분위기로 고급독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미국여성도 골치아픈 육아문제

맞벌이 부부의 최대고민은 육아문제이다.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 돈은 좀 들더라도 입주 보모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까, 여유만 있다면 입주 보모를 고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사회학자 줄리아 위글리의 저서 <다른 사람의 아이들>(베이지북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부모와 보모 간의 갈등이 아이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경우이다. 미국에서 보모로 고용되는 사람의 대다수는 중남미 또는 아시아 출신의 저소득층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 공통의 문제인 육아를 통해 한 사회의 단면을 파헤쳐나간 저자의 시도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중상류층 부모들 중 대다수는 보모에 대해 착취적이며 무신경하다. 보모들도 생소한 문화적 환경과 저임금(중남미인의 경우 평균 1주일에 180달러)으로 인해 위축돼 있다. 이로 인해 상호 불신이 싹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부모가 출근한 후 비디오 카메라로 보모와 아기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보모들은 자신을 고용할 만한 가정이라면 대부분 가사를 돕는 하녀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기를 직접 돌볼 시간적, 육체적 여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손에 아기를 맡기면서 말로만 참견한다는 이야기이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보모 대신 탁아소를 권장하고 있다. 어린이의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는 등 생각보다 이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에 국한된 연구여서 아쉬운 부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장난감박람회장 입구. 출판사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다.

이 많기는 하지만, 전세계 공통의 문제인 육아를 통해 사회의 단면을 파헤쳐간 저자의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 학계의 반응이다. <오애리>

책이 있는 장난감박람회

독일 남부의 프랑켄 지방에 위치한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장난감박람회는 국내를 포함한 국제적인 장난감 거래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제규모의 크고 작은 계약뿐만 아니라 한해의 사업성패를 뚜렷이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연초에 열리는 박람회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주문량이 일년동안의 모든 거래량까지 좌우하는 것이다.

참가자의 구성면에서 보면 장난감 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도서 출판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제46회 장난감박람회에는 50개국의 2500 참가업체 중에 200개의 출판사가 참가했고 현재 약 900개의 출판사들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둔 상태이다. 대다수의 아동 및 청소년 도서 출판사들이 거의 모두 참가했거나 참가할 예정인 셈이다. 그래서 뉘른베르크 장난감박람회는 프랑크푸르트와 볼로냐에 이은 세번째 아동도서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참가하는 출판사의 대다수는 장난감류도 함께 생산하고 있지만 약 5내지 10퍼센트 만을 장난감 시장에 할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난감과 도서분야는 구조와 문제점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중에서도 장난감 시장의 위축은 대표적인 예이다. 대기

업이나 해외무역상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지난해에는 3퍼센트의 판매감소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에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장난감보다 더 많은 양의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놓기도 하였다.

장난감박람회에 전시된 교육적인 도구로서의 책은 동요를 담은 카세트테이프와 노래책, 유치원 등에서 사용될 교재 및 도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시각적 효과와 놀이의 용도를 함께 지닌 팝업북이 가장 두드러진다.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구매력 축진을 감안한 기획안이다.

몇몇 대형 출판사들은 양질의 도서가 무엇보다 우선임을 강조했다. 라벤스부르거 출판사는 지난해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위축 속에

서도 5.5퍼센트의 판매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전시기간 중에는 '북캠프'를 열어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어린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에게는 연령에 맞는 적정도서를 설명해주는 등 "그림책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슬로건을 실천에 옮겼다. "그림들이 이야기되고 아이들이 곧 고객이 되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를 마치고 전문가들은 각종 매체가 급격히 발달해가는 상황에서 한정된 목표물을 향한 경쟁도 바람직한 면을 지닐 수 있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장난감이나 책은 단순한 소비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더욱더 치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문성원>

알림

본지 '서평·신간소개' 안내의 말

<출판저널>은 국내에서 출간되는 온갖 종류의 책 가운데 출판의 의미가 있거나 소개 가치가 높은 책들을 선정, 서평·저자 인터뷰·대담·신간 읽기·신간 리뷰·출판화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판저널>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정성껏 만든 신간도서를 보내 주시면 책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저희 지면에 반영하게 됩니다. <출판저널>을 통해 좋은 책을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출판사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간도서 출간 즉시 간단한 '보도자료'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내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고 성실하게 다루어 드립니다.
2. 현재 기획·제작중이거나 번역중인 책은 출간 전이라도 비중에 따라 적절한 지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출판저널> 편집부